# 접촉 추돌 충돌

## (요8:21~30)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접촉 추돌 충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접촉, 추돌, 충돌, 이 세 가지 단어는 교통사고의 종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접촉사고, 추돌사고, 충돌사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지인과 함께 뉴욕 시내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서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함께 탄 차가 일본에서 만든 새 차였고 그 옆에 뉴욕의 유명한 노란 택시에서 차가 오래 서있으니까 손님이 답답했는지 거기서 문을 열고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옐로우 캡이 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 육중한 택시의 문이 쾅 하고 내가 타고 있던 차의 옆문을 찍은 겁니다.
쿵 하기에 봤더니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려서 따져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뉴욕 시내에서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차 몰지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도 넓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접촉사고는 이처럼 경미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추돌사고는 뭡니까?
추돌사고는 추적한다고 할 때의 추(追)자를 써서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돌사고는 정면으로 마주보고 부딪힌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 세 가지 교통사고의 종류들을 보면서, 공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떤 경우에든지 닿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닿는 것을 접촉사고라고 하고, 정면으로 심각하게 닿는 것을 충돌사고라고 하고, 뒤에서 일방적으로 와서 닿는 것을 추돌사고라고 합니다.
닿는다는 것은 두 개의 물체 사이에 빈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항상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주행 중이든 주차중이든 정지 중이든 간에 항상 자동차들끼리 빈틈이 있어야지 서로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닿으면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닿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 그 어느 것에도 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몸에도 내 마음이 닿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닿으면 그건 바로 사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이 닿는 것 자체가 사고입니다, 자동차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접촉사고라고 하듯이 가볍게라도 닿으면 하여간 그건 사고입니다.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6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살고 있어도 가족끼리 닿으면 안 됩니다.
내 몸에도 내 마음이 닿으면 안 되니까, 하물며 가족끼리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구세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 밖으로 나가시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 속해있으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주님을 찾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찾는다는 얘기는 구원해줄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자가 오시면 독립하여 찬란한 문화와 영광과 발전을 꽃피울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예수님이신 바로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잘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병행 구절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러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속해있는 겁니까, 속해있지 않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가 요즘 통째로 세상에 속해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에 속해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속해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닿음을 통해서 속하게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빈틈이 없어지는 것이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있다는 것은 무얼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떤 일에 닿게 될 때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속하게 될까요?
마음이 닿으면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처음에 접촉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느낌에서부터 출발해서 판단이 생깁니다.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은 계획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상 속으로 깊이 끌려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깊이 말려들어 갑니다, 세상으로 깊이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이 닿으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닿으면 접촉사고요, 마주보며 세게 닿으면 충돌사고, 뒤따라가면서 들이받으면 추돌사고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접촉이 되고 닿으면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게 되고,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닿아서 말려들어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려들어간 상태에서 세상의 상황이 발전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그걸 구원을 위한 구원자를 찾는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세상 안에서 이루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를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몸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고, 부부가 서로 보면서 마음이 배우자에게 가닿습니다.
마음이 닿는 것을 우리는 애정이라고 표현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접촉사고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닿아도 될 수 있고, 닿아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간의 마음이 가서 닿게 될 경우는 다 사고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너무 강렬하게 좋아합니다, 이건 정면충돌사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이 닿은 곳에서 반드시 damage, 상처와 찢김과 부서짐과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고에요.
자동차가 닿으면 사고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무언가에 닿으면 그건 사곱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도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충돌사고이고, 가벼운 이웃 간의 인간관계 교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접촉사고입니다.
괜히 마음을 김 집사에게 주었다가 김 집사와 싸움이 붙습니다, 이건 접촉사고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충돌사고입니다.
이혼합니다, 인생에 아주 큰 damage가 생깁니다, 충돌사고에요.
그리고 돈, 건강, 외모, 이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는 추

돌사고입니다.

마음을 돈에 둡니다, 마음이 돈에 가닿습니다, 접촉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느낌이 생깁니다.
'아,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판단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더 벌어야 되겠다, 이만하면 족하다' 돈에 대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액션이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고 아내에게 깊이 관여해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닿은 것 자체가 사고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찍힘이 많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죄와 허물이 생기느냐 하면 자꾸 닿으니까, 자동차처럼 닿으면 안 되는데 자꾸 닿으니까, 가볍게 닿든 정면으로 부딪혀 닿든, 쫓아가서 추돌해서 부딪히든, 부딪힘을 당하건 자꾸 닿으니까, 허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사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셨을까요?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도 인간이시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니까, 또 하나님이니까 그 지혜가 무한하시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말하고 판단할 게 많아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말하고 판단할 게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닿지 않는 겁니다.
닿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께 마음이 닿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마음이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닿아있는 그 자식과 아내 남편 사업 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말과 취해야 될 행동을 가르쳐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셨으므로, 세상에서 살았는데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실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닿지 않고 하나님께 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땅에 기어 다니는 개미 한 마리조차에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내일이면 시들어버릴 들의 백합화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닿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 마음이 닿아있지 않아도, 내가 내 아내에 사업에 내 직장에 마음이 닿아있지 않아도 심지어 내 몸에 내 마음이 닿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닿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이 닿아있는 상태로부터 다 떼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세상에 속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음이 닿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닿아있으면서 세상에 말려들어 갑니다.
깊이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의욕을 발동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하면서 자꾸 말려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있는 겁니다.

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닿는 것에서부터.
접촉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빈틈이 없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려면 빈틈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내가 자식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바른 부모가 되려면 자식에게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업에 마음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속해버리는 거고, 세상에 속해버리는 거고, 사업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이 닿아있으면서 말려들어 갔으니까.
하나님께만 닿아야 될 마음이 거기에 말려들어 갔으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이 키우면서 죄 짓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죄 짓고, 연애하면서 죄 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닿은 게 죄니까.

아, 어떻게 주님처럼 안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원죄가 없었으니까 안 닿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원죄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닿게 되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말려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다가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세상에 속한 상태로 죽으리라'
아니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닿아서 세상에 끌려 들어가 살리라'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3장 16절 이하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계속 그 주제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마음이 닿으려고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시합니다.
'아이구, 내가 죽었는데…, 자식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닿을 리가 있나, 죽은 사람인데…'
아내에게 잔소리 좀 하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아내에 대해서, 이 시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으나 마음이 닿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닿지 않으려면 주님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셨지만, 우리는 원죄의 기운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닿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먼저 기억해내고, 우선시하고, 그리고 동일시해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가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닿으려고 하는 모든 찰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사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고 동일시하면서 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아버지와 교통하며 느끼신 그 느낌을 우리에게 느낌으로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에 대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천국에 가닿아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동하며 사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선시하고 동일시하며,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는 게 최고에요, 최고.
결국, 누가 더 많이 생각하고, 누가 더 계속 생각하고, 누가 더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느냐가 관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닿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닿고,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없어질 만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되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That's OK! That's enough! 그러면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얼 바랍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가겠지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마음이 천국에 가닿고 있으면서, 닿으면서 느끼는 느낌 안에 충만하고 있으니까.

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 하루, 내일, 모레, 계~속 접촉사고 있으면 안돼요.
서로 좋아한다고, '아,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다니!'
돈이 나를 향해 막 달려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이 나를 좋아합니다.
이거 충돌사고인 줄로 아세요!
그리고 내가 쫓아갑니다, 짝사랑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무엇이든지 쫓아갑니다, 추돌사고입니다.
마음이 닿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선시하고 동일시하고, 24시간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마음이 가닿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하늘에 속하시고 하늘에 마음이 가닿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여 정말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